

##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 이 교재는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소속된 교회에서 성경공부/훈련을 위해 제작된 교재입니다. 교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은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가입하시고 최우수회원이 되셔야 합니다.

# 예수닮기반 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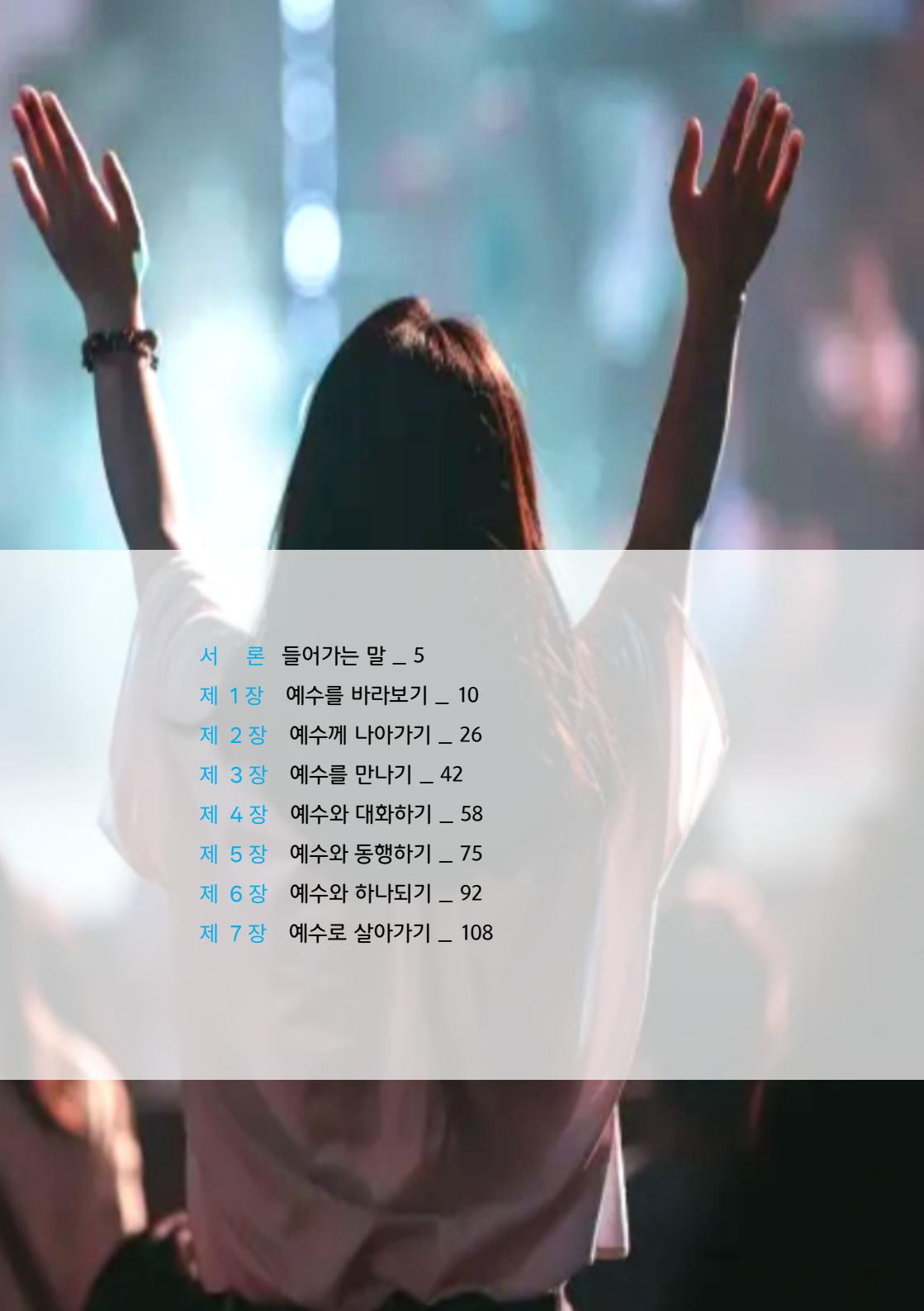
예수를 닮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7단계 과정을 통해  
예수닮기 여행을 시작합니다



# 목 차

CONTENTS





서 론 들어가는 말 \_ 5

제 1장 예수를 바라보기 \_ 10

제 2장 예수께 나아가기 \_ 26

제 3장 예수를 만나기 \_ 42

제 4장 예수와 대화하기 \_ 58

제 5장 예수와 동행하기 \_ 75

제 6장 예수와 하나되기 \_ 92

제 7장 예수로 살아가기 \_ 108





서 론

/

들어가는  
말

## 내 안의 자아를 비우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우는 거룩한 여정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갈등과 영적 기갈 속에서 방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 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채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종교적인 지식을 쌓거나 도덕적인 훈계를 따르는 생활 양식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죽었던 내 영혼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당신의 인격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존재의 전이'에 있습니다. 본 교재는 이러한 영적 원리를 바탕으로, 성도가 어떻게 세상의 거친 물결을 거슬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속사적 해답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세상의 화려한 유혹과 나를 증명하려는 욕망으로부터 눈을 돌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주목하는 ‘시선의 혁명’을 경험해야 합니다. 시선이 머무는 곳에 마음이 가고, 마음이 고정된 곳에서 비로소 삶의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이제 자신이 안주하던 과거의 결핍과 세속적인 안위를 박차고 일어나, 은혜의 보좌를 향해 담대히 발걸음을 옮기는 ‘나아감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 걸음의 끝에서 우리는 존재의 근원을 뒤흔드는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며, 이 조우를 통해 깨어진 자아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덧입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영혼은 이제 하늘 문을 여는 언어인 ‘대화’를 통해 주님과 심장 박동을 맞추는 법을 배웁니다. 기도는 내 요구를 관찰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내 뜻을 꺾어 하나님의 뜻에 합치시키는 거룩한 순복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소통이 일상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과 보폭을 맞추어 걷는 ‘동행’의 신비를 누리게 됩니다. 동행은 우리를 주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 됨’의 연합으로 이끌며, 이 연합 속에서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으로부터 무한한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 모든 여정의 최종적인 도달점은 바로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만이 나의 인격과 삶을 통해 향기로 방출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창조의 목적이다 구속의 완성입니다.

본 서는 단순히 읽고 지나가는 책이 아니라, 독자 여러분의 삶을 십자가 앞에 세우고 성령의 조명 아래 자신을 비추어보는 영적 거울이 되기를 소망하며 집필되었습니다. 각 장에 담긴 성경의 심층적인 분석과 구속사적 통찰들이 여러분의 영맥을 짚어주고, 굳어있던 영혼의 세포들을 깨워 예수의 생명으로 박동하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여정의 첫발을 내딛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 오직 예수로 사는 자로서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빛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 1월

데이빗리 목사





1 장

/

예수를  
바라보기

# 제 1 장 예수를 바라보기

## 도입내용

예수를 바라보고 모든 변화는 시선의 고정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자아의 욕망으로부터 눈을 돌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 영적 회복의 서막이 열립니다. 주님을 바라봄은 환경을 이기는 믿음의 기초이자 생명의 빛을 수용하는 통로입니다.

### 1. 시선의 영적 전환은 세상에 대한 단절과 주님을 향한 집중을 의미합니다

#### 가. 환경의 거센 파도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력

(1) 갈릴리 바다의 거센 풍랑 속에서 주님의 "오라"는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린 베드로는 잠시나마 물 위를 걷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 라”(마 14:30)고 매우 정교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속으로 침몰하기 시작한 지점은 파도가 높아진 물리적인 환경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향했던 시선을 거두어 거센 바람과 눈앞의 환경을 주목한 찰나의 영적 시선 이동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30]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 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2) ‘바라보다’의 헬라어 <아포레포>는 다른 모든 유혹과 두려움으로부터 시선을 완전히 떼어 오직 한 대상에게만 집중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의 영적 침체는 문제의 크기가 실제로 커져서가 아니라, 주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는 시선의 불균형에서 시작됩니다. 파도를 제어하시는 주님의 주권을 끝까지 응시하는 인내가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재우는 유일한 열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환경은 변하지만 주님은 변치 않으시기에, 우리

의 시력을 주님의 약속에 고정하는 훈련  
이 필요합니다.

## 나. 다메섹의 강렬한 빛 아래서 육신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뜯 바울의 회심

(1) 교회를 팝박하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  
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임하신 주님  
을 마주하며 육신의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행 9:3-9). 이는 그가 지금까지 절대  
적인 가치로 여겼던 유대교적 전통과 자  
신의 의(義)가 빛 앞의 그림자에 불과함  
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시  
선 교정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옛 자아  
의 시선이 죽고, 바울이라는 새로운 시  
선이 탄생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거룩한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2) 바울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깊  
은 어둠 속에서 오직 마음의 눈으로 영

[행전 9:3-9] 사울이 행  
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  
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  
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  
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  
가 어찌하여 나를 팝박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  
하되 주여 뉘시오니이  
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팝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  
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  
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  
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  
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  
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  
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광 중에 계신 주님만을 독대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세상의 조명에 눈먼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눈뜬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바라 보기 위해서는, 나를 높이려 했던 세상의 화려한 욕망들을 먼저 차단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갈망하는 영적 진공 상태를 확보해야 합니다. 세상의 빛을 잊을 때 비로소 하늘의 영원한 빛을 소유하게 되는 역설적인 은혜가 임합니다.

다. 영적인 안목이 열릴 때 비로소 우리를 호위하는 하늘 군대를 목격하게 됩니다

(1) 엘리사의 사환은 성읍을 겹겹이 에워싼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를 보고 절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평온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여 그 사환의 눈을 열자, 그는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호위하

고 있는 영적 실재를 보았습니다(왕하 6:17).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는 영적 시야가 확장될 때 두려움이 소멸됨을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6:17]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시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2) 신앙이란 육안으로 보이는 현실의 고난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주목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훈련을 지속할 때, 고난은 더 이상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정금같이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재해석됩니다. 주의 영광을 주목하는 자는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거룩한 성화의 신비를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환경보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안목이 승리의 근거입니다.

## 2. 예수를 바라봄은 생명을 얻는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 가. 광야의 놋뱀 사건이 예표하는 십자가 대속의 신비와 구원의 원리

(1)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으며,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민 21:9)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쳐다보다’는 단순한 힐끗거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대상을 신뢰함으로 뚫어지게 응시하며 전적으로 의지하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이는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세상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 절망적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을 수용하는 행위입니다.

[민수기 21:9]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2) 주님은 이 사건을 친히 인용하시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요 3:1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대의 놋뱀이 독을 해독했듯이,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영혼을 좀먹는 죄의 독이 제거되고 영원한 생명의 에너지가 주입됩니다. 구원은 나의 도덕적 선행이나 종교적 노력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봄이 곧 영적 수혈이며 생명의 회복입니다.

[요한복음 3: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 나. 아브라함이 보았던 약속의 별과 하늘에 건설된 영원한 도성

(1) 자녀가 없어 절망 중에 거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

라"(창 15:5)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텅 빈 자신의 환경과 노쇠한 육체가 아니라 하늘 가득히 빛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고, 그 시선의 고정을 통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바라봄은 불가능한 현실의 감옥을 뚫고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우리의 영혼을 이동시키는 창조적이고도 역동적인 행위입니다.

[창세기 15:5]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2) 히브리서 11:10은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이 땅의 유한한 소유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목하며 현재의 고난을 낙담하지 이겨내는 소망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저 영원한 성에 고정될 때, 이 땅의 모든 결핍은 더 이상 우리를 흔들거나 위협하

[히브리서 11:10]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짓습니다.

## 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얹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하는 시선의 권세

(1) 마라톤 선수가 골인 지점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신을 무겁게 하는 옷을 벗어던지듯, 주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자는 자신을 얹매는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기꺼이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 12:2)는 말씀은 주님이 우리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이심을 확증하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우리를 끌어내리던 죄의 중력은 그 힘을 잃게 됩니다.

(2) 주님께 시선이 고정된 영혼은 거친 광야에서도 길을 잊지 않습니다. 세상의

[히브리서 12:2]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조롱과 핍박이 폭풍처럼 몰아칠지라도,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최종적 승리를 주목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거룩한 뒷심을 얻게 됩니다. 주를 바라봄은 곧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능력을 공급 받는 영적 충전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바라보는 대상이 우리의 인격을 빛고 우리의 미래를 규정합니다.

### 3.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주목함으로 영적 승리를 실제적으로 쟁취해야 합니다

#### 가. 문제의 거대함보다 크신 주님의 주권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선포하기

(1)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골리앗의 거대한 체구나 그가 든

칼과 단창에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즉 골리앗을 한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주목했습니다(삼상 17:45). 우리가 직면한 현실의 벽이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그 벽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때 두려움은 소멸되고 거룩한 담대함이 샘솟습니다. 거인에게 압도당할 것인가,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을 주목할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사무엘상 17:45] 다윗  
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  
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  
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  
노라

(2)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세상이 쏟아내는 불안한 뉴스와 SNS의 소음들에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주님의 인격을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된 평강에 시선을 고정하여 하루의 문을 여십시오. 첫 시선을 누구에게 주느냐가 그날 하루 전체의 영적 기류와 승패를 결정짓게 됩니다. 문제보다 주님을 더 많이 말하고 주님을 더 깊이 주목

하는 것이 신앙의 실제적인 실력입니다. 시선의 우선순위가 곧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 나. 나의 부족함이 아닌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바라보기

(1) 모세는 자신의 입이 뻣뻣하고 둔한 한 계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출 4:11)라며 주님 자신의 창조주 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점에 매몰되어 낙심할 때가 많지만, 우리의 약함을 통로 삼아 강함을 나타내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비로소 진정한 사명자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의 결핍을 보지 말고 주님의 충만함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도약입니다.

[출애굽기 4:11]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병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여호와가아니냐

(2)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는 고백은 결코 자만심이 아닙니다. 이는 철저히 주님께 시선을 고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겸손하고도 강력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나의 자아는 십자가의 그늘 아래 감추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만을 주목할 때, 우리의 삶은 예수로 살아가는 기적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실망하지만 주를 바라보면 소망이 넘칩니다.

[별립보서 4:13]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 다. 일상의 모든 만남 속에서 주님의 형상을 발견하려는 영적 훈련

(1)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배당의 성스러운 의식 속에만 갇혀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을 볼 때, 일터에서 까다로운 직장 상사를 대할 때, 그들의 허물보다 그들을 위

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얼굴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 실질적인 바라봄의 실천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는 상대방의 얼굴에서 주님의 형상을 보지 못 할 때 발생합니다. 시선의 교정이 곧 관계의 회복입니다.

(2) 우리가 모든 사람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주목할 때, 우리의 인간관계는 비난과 정죄가 아닌 긍휼과 사랑의 성소로 변화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주목함으로 그분의 눈을 이식받으십시오. 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볼 때, 당신의 삶은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일구는 화목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로 산다는 것은 예수의 시선으로 온 세상을 품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2 장

/

예수께  
나아가기

## 제 2 장 예수께 나아가기

### 도입내용

예수께 나아가고 바라봄은 반드시 발걸음의 이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의 자리를 박차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종교적 관념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실존적 신앙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 1. 나아감은 과거의 결핍과 익숙한 안주를 떠나는 거룩한 이탈의 시작입니다

##### 가. 아브라함의 '떠남'을 통해 배우는 실존적 결단과 믿음의 전진

(1)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머물던 아브람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창 12:1)고 명하셨을 때, 그것은 당시 사회

[창세기 12: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적 생존 기반이었던 모든 안전망을 포기 하라는 급진적인 요구였습니다. 여기서 '떠나다'의 히브리어 <레크 레카>는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하여, 너의 참된 본질을 발견하기 위해 가라'는 영혼의 독립 선언입니다. 나아감은 곧 익숙함이라는 감옥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2)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것은 눈앞의 확실한 지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하신 이의 신실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히 11:8). 우리 역시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 과거의 상처, 익숙한 인맥이라는 '본토'에 마음을 묶어두고 있다면, 결코 주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나아감은 곧 옛 자아와의 결별이며, 주님의 약속만을 나침반 삼아 걷는 거룩한 모험입니다.

[히브리서 11:8]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 나.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주를 쫓은 우선순위

(1) 갈릴리 해변에서 생업에 종사하던 베드로와 안드레는 주님의 "나를 따라오너라"는 부르심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마 4:20)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물은 가족을 부양하는 수단이자 삶의 정체성이었으나,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대면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절대적인 가치가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초청 앞에 '곧' 반응하는 순발력이 베드로의 인생을 어부에서 사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2)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내 인생의 배와 그물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나만의 그물'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마태복음 4:20]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대면해야 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자녀든, 혹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자존심이든, 주님보다 앞서 있는 그것을 기꺼이 놓는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영광스러운 새로운 소명을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이 없는 나아감은 결국 제자리걸음일 뿐입니다.

## 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향해 돌이킨 '돌아감'의 용기와 회복의 신비

(1) 먼 나라의 흉년 속에서 돼지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던 탕자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눅 15:18)라고 결심한 철나, 그의 구속사적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나아감의 영성은 자신의 비참한 파산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아버지의 자비 외에는 어떤 소망도 없음을 고백하는 가난한 심령에서 흘러나옵

[누가복음 15:18]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니다. 비참함의 밑바닥이 곧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영적 도약의 발판이 됩니다.

(2) 아버지께 나아가는 탕자의 발걸음은 수치와 두려움으로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주님의 엄중함 때문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분의 무조건적인 용납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허물을 가졌든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정죄의 자리가 아닌,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우는 상속자의 잔치로 초대받게 됩니다.

## 2. 나아감은 장애물을 돌파하고 주님의 보혈을 힘입는 담대한 도전입니다

## 가. 혈루증 여인의 간절함이 보여주는 영적 돌파력과 치유의 서막

(1) 십이 년을 혈루증으로 앓아 온 여인은 당시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로 낙인찍혀 회중 가운데 결코 나올 수 없는 소외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람들 의 비난 섞인 시선과 신체적 한계를 뚫고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녀의 심령 속에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마 9:21)는 절박하면서도 티 없이 맑은 믿음의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이 기적을 부릅니다.

[마태복음 9:21] 이는 제  
마음에 그 옷자락만 만  
져도 구원을 얻겠다 함  
이라

(2) 주님께 나아가는 길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방해물이 존재합니다. 주변의 차가운 시선, 자신의 죄책감, 혹은 '주님이 나

같은 자를 돌아보실까' 하는 의심의 화살입니다. 하지만 혈루증 여인처럼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해결책임을 믿고 세상의 소음을 헤치고 나아갈 때, 주님의 몸에서 나간 거룩한 능력이 우리의 고질적인 영적 질병을 송두리째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나아감은 고정관념과 수치심을 돌파하는 담대한 영적 전쟁입니다.

## 나. 지붕을 뚫고 친구를 예수 앞에 내린 중보적 나아감의 열정

(1)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네 친구가 인파로 인해 주님께 접근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주님 앞에 달아 내렸습니다(눅 5:19). 주님은 병자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과 치유의 은혜를 동시에 베푸셨습니다. 주

[누가복음 5:19] 무리때 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님께 나아가는 길은 때로 창의적이고 과격할 만큼 뜨거운 열정을 요구하며, 그 열정은 결코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습니다.

(2) 나아감은 때로 비상식적이고 과격할 만큼 뜨거운 열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나 혼자만의 구원을 넘어,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웃을 주님 앞에 데려다 놓는 중보의 수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닫힌 지붕을 뚫어서라도 주님의 면전으로 나아가는 그 거룩한 집요함이 우리 삶의 불가능한 영역을 가능한 영역으로 옮겨놓는 강력한 열쇠가 됩니다. 거룩한 집요함이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다. 찢겨진 휘장을 지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보혈의 권세

(1)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얻는 돋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6)고 우리를 재촉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조차 죽음의 두려움 속에 일 년에 한 번 들어갔던 지성소의 휘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함께 찢어짐으로써, 우리는 이제 언제든 만유의 주재이신 하나님께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4: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얻는 돋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2) '담대히'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르레시아>는 '모든 것을 숨김없이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합니다. 우리는 이제 죄인이라는 자격지심에 눌려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당당히 제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창고를 열고 필요한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담대함이야말로 예수께 나아가는 자가 누리는 구속사적 특권의 정점입니다. 보혈이 곧 우리의 입장권입니다.

### 3. 주님께 나아가는 삶은 매일의 일상을 거룩한 예배로 바꾸는 성화의 여정입니다

#### 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의 가벼운 멍에와 바꾸는 영적 교환의 신비

(1)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아다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고 초대하십니다. 여기서 '오라'는 과거의 한 시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의 나아감을 뜻합니다. 나아감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고통을 피하는 안락함이 아니라, 나의 무거운 짐(죄와 염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가벼운 멍에(말씀과 사명)를 메

[마태복음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아다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는 거룩한 교환에 있습니다.

(2) 주님께 나아간다고 하여 모든 인생의 숙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 한 명예를 메고 세상을 이기는 법을 실전으로 배우는 것이 참된 쉽입니다. 내 힘으로 끌려 했던 인생의 수레를 주님의 발앞에 멈추어 세우고, 주님의 보폭에 나의 걸음을 맞춰 걷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혼의 깊은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명예를 바꾸는 것이 곧 참된 자유입니다.

나. **삭개오가 돌무화과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주님을 영접한 즉각적인 순종**

(1)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는 주님을 보기 위해 체면을 버리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삭

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눅 19:5)고 하셨을 때, 그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즐거워하며' 주님을 자신의 가장 사적인 공간으로 모셔 들였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몸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누가복음 19:5]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하시니

(2)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막연한 관념이나 계획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나무에서 내려오는 실천, 나의 치부와 소유가 얹혀 있는 '집'으로 주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아간 삭개오의 삶에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내어놓는 구속사적 변화가 터져 나왔듯이, 오늘 우리의 나아감 또한 실제적인 삶의 개혁과 형제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나아감은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 다. 매일 아침 말씀의 성소로 나아가 주님과 독대하는 훈련의 힘

(1) 모세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 홀로 시내산으로 올라갔듯이, 성도는 매일 아침 세상의 소음이 닿지 않는 영적인 지성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감은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축제가 아니라, 영적인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 날마다 반복되어야 하는 거룩한 호흡입니다. 주님과의 독대가 곧 세상을 이길 힘의 원천입니다.

(2) 기도의 무릎을 끓고 주님의 인격을 먹는 말씀의 식탁 앞에 앉는 그 순간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영적 이동의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성취와 성공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은혜의 보좌를 향해 무릎으로 나아가

는 성도에게, 하늘 문은 활짝 열리고 땅  
이 결코 흉내 낼 수 없는 신령한 지혜와  
위로가 쏟아질 것입니다. 매일의 나아감  
이 곧 매일의 승리를 보장합니다.





3 장

/

# 예수를 만나기

## 제 3 장 예수를 만나기

### 도입내용

예수를 만나고 주님과의 만남은 존재의 근원을 뒤흔드는 인격적 조우입니다. 수가성 여인과 베드로처럼 자신의 실상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주님의 용납을 경험할 때, 상처 입은 자아는 치유되고 하늘에 속한 새로운 신분으로 재창조됩니다.

#### 1. 인격적 조우와 연합은 존재의 실상을 드러내고 하나가 되는 사건입니다

##### 가. 체험적 앎을 통해 영혼의 갈증을 근원적으로 해갈하는 만남

(1) 성경에서 '만나다' 혹은 '알다'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야다>는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적 동의가 아닙니다. 이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깊이 경험하며 하

나가 되듯,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분의 본질을 체득하는 깊은 영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을 향해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요 4:29)고 외친 것은, 만남이 곧 나의 숨겨진 실존과 상처를 주님의 빛 가운데로 정직하게 드러내는 사건임을 증명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은 곧 나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29]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하니

(2) 사마리아 여인은 다섯 번의 결혼 실패와 현재의 불완전한 관계라는 깊은 소외와 목마름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정오의 뜨거운 태양 아래 물을 길으러 왔지만,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도덕적 수치보다 영적인 갈증을 먼저 주목하셨

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14)는 말씀으로 그녀의 영혼을 적셔 주셨습니다. 주님과의 참된 만남은 우리가 세상에서 채우려 했던 헛된 물동이를 기꺼이 버리게 하고, 우리 내면에서 솟구쳐 오르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발견하게 하는 존재론적 혁명입니다.

[요한복음 4:1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 나. 거룩한 면전에서 죄인의 정체성을 깨닫고 엎드리는 겸손의 관문

(1)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빈 배였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을 때, 배가 잠길 정도의 엄청난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관심은 잡힌 물고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기적 너머에 계신 창조주의 위엄을 보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눅 5:8)라고 고백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대면 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은 자신의 비참한 실상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조건적으로 항복하는 것입니다. 만남은 나를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주를 높이는 자리입니다.

[누가복음 5:8]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하니

(2)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만남은 단순히 과거의 죄를 들춰내는 정죄의 시간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옛 신분의 옷을 벗겨내고 하나님의 파트너로 세우시는 거룩한 재창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철저히 파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비천한 어부

에서 열방을 살리는 위대한 사도로 빛어 가십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을 때 우리의 초라한 빈 배는 사명의 배로 전환됩니다.

## 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가려진 눈을 열어주신 주님

(1) 예수님의 죽음으로 낙심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제자 곁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으나, 그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눅 24:16). 그들은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도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시고 떡을 떼어 축사하실 때 비로소 영안이 밝아져 주님을 보게 되었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영적 각성을 경험했습니다. 만남은 우리의 오감이나 이성이 아닌, 주님의 계시를 통해 우리 영안이 열

[누가복음 24:16]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 인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릴 때 비로소 완성되는 하늘의 신비입니다.

(2)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절망의 방향이었던 엠마오를 버리고, 즉시 예루살렘이라는 사명의 자리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참된 만남은 우리의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고, 비겁한 도망자의 발걸음을 담대한 증인의 발걸음으로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삶의 고통과 상실감으로 눈이 가려져 곁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할 때, 기록된 말씀을 펼치고 주님의 떡을 떼는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대면하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모든 방황은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 2. 만남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회복을 완성합니다

## 가. 가치관의 전격적인 전향과 하나님 나라 를 향한 삶의 재편

(1) 여리고의 세리장 삽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 인격적으로 만난 후,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선언한 것은 단순한 도덕적 결단이 아닙니다. 이는 물질이 신이었던 세속적 가치관이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그의 내면에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가치관의 전격적인 전향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는 이 땅의 유한한 소유가 주는 찰나의 만족보다 주님의 용납이 주는 영원한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이 더 큼을 영혼의 전율로 깨닫게 됩니다. 만남이 곧 인생의 목적을 바꿉니다.

(2)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이전의 모든 인간적 자랑과 혈통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참된 만남은 우리 삶의 엔진을 완전히 교체합니다. 나를 증명하고 쌓아 올리기 위해 달리던 발걸음이 멈추고, 이제는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드러내기 위한 방향으로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강력하게 고정되는 구속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이 결코 주지 못한 참된 만족을 주님 안에서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소유의 집착에서 벗어나 거룩한 나눔의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 나. 상처 입은 자아의 치유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계승

(1) 주님과의 만남은 어둠 속에 감추어 두었던 은밀한 죄와 오랜 세월 우리를 괴롭혀 온 내면의 상처를 빛 가운데로 이

끄는 거룩한 성령의 수술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아픈 과거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녀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따뜻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마음의 빗장을 열 때, 주님의 보혈은 우리 영혼의 찌꺼기를 닦아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근원적인 평강과 자존감을 부어 주십니다. 치유된 상처는 이제 별이 되어 빛나기 시작합니다.

(2) 주님과의 화목을 경험한 영혼은 이제 자신을 가두었던 미움과 원망의 벽을 허물고 이웃과의 화해를 시도하는 '회복의 통로'가 됩니다. 내가 주님께 아무 조건 없이 용납받고 용서받았다는 확신은 나에게 상처를 준 타인을 기꺼이 용납할 수 있는 거대한 영적 자산이 되며, 이는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만남의 축복은 결코 한 개인

의 내면에 머물 수 없으며, 반드시 나를 통과하여 타인에게로 흐르는 거룩한 유통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는 만남을 통해 화목의 대사로 파송됩니다.

##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부활 생명의 신비

(1)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는 선포는 만남이 가져오는 구속사적 완성의 정점입니다. 과거의 결핍과 가문의 상처, 그리고 실패의 기억에 매여 있던 자아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늘에 속한 존귀한 신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전의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만남의 본질입니다. 생명의 접붙임이 일어나는

[고린도후서 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순간입니다.

(2) 우리는 이제 '어제의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 완전히 새롭게 된 '오늘의 나'로 살아갑니다. 날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부딪히며 그분의 성품을 덧입는 과정이 바로 우리 삶을 지상에서 천국으로 바꾸어가는 거룩한 성화의 길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일회적인 추억으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깊어지는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새롭게 빛어 가십니다. 만남은 곧 영생의 시작이며,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의 끝없는 확장입니다.

### 3. 주님을 만난 감격을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사명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 가. 매일의 골방에서 주님과 독대하며 만남

## 의 감격을 유지하기

(1) 단회적인 만남의 기억만으로는 거친 세상을 이길 힘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과 낮을 마주하며, 그날 하루를 살아갈 영적 에너지와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요란한 소음을 잠재우고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는 이 고요한 독대의 시간이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임을 기억하십시오. 만남의 연속성이 곧 영적 건강의 척도입니다.

(2)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서서 "주님, 지금 바로 여기 계시는군요"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현존 의식이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일상의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 때, 우리는 어떤 위협과 갑작스러운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

는 영적인 담대함과 평안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만남의 감격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새롭게 묵상하며 그분과의 친밀함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 나. 깨어진 관계의 현장에 만남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화해의 사명

(1)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주님이 오늘 내게 보내주신 사람'으로 대하는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던 그 자비의 시선으로 가족과 동료를 바라볼 때, 갈등의 얼음은 녹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얻었던 그 자유가 나의 따뜻한 친절과 인내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그들 또한 당신의 인격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2)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하거나 비난할 때,  
그 사람의 허물보다 그를 위해 십자가에  
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얼굴을 먼저 떠  
올리십시오.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 만남  
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을 정죄  
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들  
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자의 자리  
에 서게 됩니다. 당신의 인격과 삶의 태  
도가 곧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  
게 하는 '살아있는 서신'이 될 때, 당신은  
진정으로 예수로 살아가는 법을 온 세계  
에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4 장

/

# 예수와 대화하기

## 제 4 장 예수와 대화하기

### 도입내용

예수와 대화하고 기도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주님과 심장 박동을 맞추는 대화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뜻을 꺼어 하나님의 뜻에 합치시킬 때, 우리의 언어는 세상을 치유하고 하늘 권세를 움직이는 능력이 됩니다.

#### 1. 대화는 일방적인 간구가 아닌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인격적 교류입니다

##### 가. 형식을 넘어 마음의 중심을 토로하는 솔직한 고백의 영성

(1) 주님과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사여구가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입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자신의 고통과 분노,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의구심까지도

숨김없이 쏟아냈던 것처럼, 참된 대화는 우리 내면의 민낯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낼 때 시작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련된 종교적 언어로 꾸미는 것보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짧은 신음 소리에 더 깊이 반응하십니다. 대화는 나를 포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비워 주님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2)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를 경계하시며,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마 6:6). 이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보여주기식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존재하는 단절된 공간에서 나누는 내밀한 사귐을 뜻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잡음을 차단하고 주님과 단독자로 마주 앉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청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 진정한 대화는 침묵 속에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기다리는 인내로부터 완성됩니다.

## 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1) 대화는 상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말하기'라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자칫 자기 쪼연이나 주관적인 환상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계시된 말씀을 통해 당신의 성품과 계획을 명확히 보여주셨으므로, 우리는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 내 삶에 개입하시는 주님의 뜻을 해석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수레의 두 바퀴처럼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대화는 영적인 궤도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2)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삼상 3:10)라고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대화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요구사항을 관찰하기 위해 주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말씀 앞에 내 고집을 꺾는 과정이 대화의 본질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때로 폭풍 가운데서가 아니라 세밀하고 고요한 울림으로 우리 양심에 찾아옵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펴고 그 안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오늘의 레마(Rhema)를 발견하는 기쁨이 대화의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3:10]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 성령 안에서 나누는 무시로 드리는 기도의 호흡

(1)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

전 5:17)고 권면했습니다. 이는 하루 종일 눈을 감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을 주님과의 대화 창구가 열려 있는 상태로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길을 걸을 때나 업무를 볼 때, 혹은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도 마음의 한 자락을 주님께 고정하고 짧은 화살 기도를 던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기에, 우리는 성령의 흐름에 우리 영혼을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2)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이 멈추면 생명이 끊기듯, 주님과의 대화가 단절된 성도는 영적 질식 상태에 빠져 세속의 가치관에 금세 침몰당하고 맙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현장에 주님을 초청하여 그분과 상의하는 동행의 삶을 뜻합니

다.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기 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묻는 짧은 질문이 우리 인생의 행로를 거룩하게 수정합니다. 대화가 습관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움직이는 성소가 됩니다.

## 2. 구속사적 진리 안에서 대화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합치되는 현장입니다

### 가.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보여주신 자기 부인의 극치

(1)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거대한 고통 앞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께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마 26:39)라고 인간적인 고뇌를 숨김없이 대화로 풀어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

[마태복음 26:39]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께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하시고

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자기 부인의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참된 대화의 종착역은 내 소원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나의 자아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승리의 자리입니다.

(2)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과정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과 대화할 때 느끼는 갈등은 내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소망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끈질긴 대화를 통해 내 욕망의 찌꺼기를 걸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가슴에 품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을 덧입게 됩니다. 대화는 나를 포기함으로써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소유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 나.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했던 모세의 중보 기도

(1) 성경은 모세에 대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출 33:11)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모세가 하나님과 격식 없는 친밀함을 누렸음을 뜻합니다. 모세는 이 친밀함을 바탕으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호소하며 중보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닳게 되며, 그 마음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애끓는 중보로 흘러가게 됩니다.

(2) 주님은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셨습니다(요 15:15). 종은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명령만 수행하지만, 친구는 마음과 비밀을 공유합니다.

[출애굽기 33:11] 사람 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 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젊은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5:15] 이제 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주님과 깊은 대화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은 당신의 구속사적 비밀과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구체적인 사명을 들려주십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대화는 우리를 역사의 방관자에서 하나님과의 동역자로 격상시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대화가 성도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 다. 부르짖는 간구를 통해 경험하는 하늘 보좌의 실제적인 응답

(1) 주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3)고 약속하셨습니다. 대화는 막연한 명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실질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권리 행사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언어로 하늘 보좌를 움직일 때,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의 손길이 우리 삶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불가능한 환경을 개편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주님과 올바른 대화의 관계 속에 있음을 확증해 주는 기쁨의 증표입니다.

(2) 응답의 형태는 'Yes'일 수도 있고 'No'일 수도 있으며, 혹은 'Wait'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응답이든 그것이 최선임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대화의 성숙함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에,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대화를 멈추지 않는 한 응답의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야곱의 씨름 같은 기도가 우리 삶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 3. 주님과의 대화는 일상의 언어를 거룩하게 바꾸고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됩니다

#### 가.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열납되는 예배의 삶

(1)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자신의 언어 습관이 변하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의 언어는 사라지고 감사와 축복의 언어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내 입술이 주님과 대화하는 거룩한 도구임을 인식할 때, 우리는 함부로 타인을 비난하거나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시 19:14)라는 소망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정제된 언어가 성숙한 신앙의 척도입니다.

[시편 19:14] 나의 반석 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2)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을 주님께 중계하듯 말해보십시오. "주님, 지금 이 일이 힘듭니다", "주님, 저 사람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대화를 시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평강의 언어와 지혜로운 대처법을 부어 주십니다. 주님과의 대화가 끊이지 않는 인생은 세상의 거친 말들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정화하는 생명의 언어를 방출하게 됩니다. 당신의 대화가 하늘에 닿을 때 당신의 일상은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됩니다.

#### 나. 위기와 고난의 때에 지혜와 전략을 구하는 하늘의 소통 창구

(1)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긴박한 순간마다 "내가 올라가리이까?"라고 주님께 먼

저 여쭈었습니다. 주님과의 대화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전략과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내 짧은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만물의 설계자이신 주님께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정보망이자 생존 전략입니다.

(2)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약 1:5). 복잡하게 얹힌 인간관계나 경제적 위기 속에서 주님과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피할 길을 내시고, 대적의 머리 위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과 상의한 자는 세상 법정이나 싸움터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늘의 결재를 받은 자에게 세상의 위협은 한갓 바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 다. 대화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동행

(1) 주님과의 대화는 지상에서 시작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끝없는 교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누는 대화는 장차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마주 앉아 나눌 영광스러운 잔치의 연습입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주님의 인격에 감화되고,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됩니다. 결국 대화의 목적은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존재적 사귐'에 있습니다.

(2) 오늘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처럼 느껴질지라도 대화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며, 당신이 주님의

품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나누는 사랑의 대화가 당신의 인생을 이끄는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십시오. 그분과 대화하는 인생은 절대 외롭지 않으며,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잊지 않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대화는 곧 사랑의 완성입니다.





5 장

/

# 예수와 동행하기

## 제 5 장 예수와 동행하기

### 도입내용

예수와 동행하고 동행은 매 순간 주님의 보폭에 나의 걸음을 맞추는 순종의 여정입니다. 광야의 구름 기둥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탁하며, 일상의 평범한 순간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울 때 삶은 천국 잔치가 됩니다.

#### 1. 동행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이양하고 보폭을 맞추는 자기 부인의 여정입니다

##### 가. 하나님과 방향을 같이하여 끝까지 완주하는 에녹의 동행

(1) 성경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증언합니다(창 5:24). 여기서 '동행하다'

[창세기 5:24]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 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의 히브리어 <히트할레크>는 단순한 동행을 넘어 '지속적으로 함께 걷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마음을 합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동행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특별한 기적을 행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낳고 기르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동행은 화려한 비상이 아니라 매일의 성실한 걸음입니다.

(2)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고집스러운 방향을 꺾고 주님의 방향에 나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암 3:3)라는 말씀처럼, 주님과 마음의 합을 이루지 못한 채 드리는 제사는 공허할 뿐입니다. 동행은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주님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곳에 나를 기꺼이 던지는

[아모스 3:3]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이 전격적인 이양 없이는 참된 동행의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 나. 광야 길을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통제 아래 거하는 삶

(1)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자신의 계획이 아닌 구름 기둥의 움직임에 따라 행진하고 멈추었습니다(민 9:17-23).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면 그들은 며칠이고 한자리에 머물렀고, 구름이 떠오르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권적 동행의 모형입니다. 동행은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 하실 때 가고, 내가 멈추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그 자리에 서는 영적 절제와 순종을 수반합니다.

[민수기 9:17-23]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의 손을 빌어 명하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직임을 지켰더라

(2) 우리는 종종 주님보다 앞서가려 하거나 주님이 가시는데도 제자리에 주저앉아 있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동행은 주님보다 반 걸음도 앞서지 않고, 동시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도 않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길을 잊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인생의 구름 기둥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속도가 가장 정확한 속도이며, 주님의 타이밍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임을 믿고 그분께 보폭을 맞추는 것이 동행의 핵심입니다.

## 다. 멍에를 함께 메고 배우는 낮아짐과 온유의 영성

(1)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마 11:29)고 초청하셨습니다. 당시

[마태복음 11:29]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어미 소와 새끼 소가 한 명에를 메고 밭을 갈곤 했습니다. 힘센 어미 소가 모든 무게를 감당하고 새끼 소는 그 곁에서 걷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주님이 지신 명에 곁에 내 목을 살며시 얹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은 실상 주님이 다 지고 계시며, 우리는 그저 주님 곁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2) 주님과 한 명에를 멘 자는 주님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을 자연스럽게 전수받게 됩니다. 동행은 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인격의 전염입니다. 주님과 매일 함께 걷다 보면 주님이 세상을 보시는 시선을 갖게 되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영혼들을 향해 발걸음이 옮겨지게 됩니다. 내 힘으로 거룩해지려 애쓰기보다 주님 곁에 꼭 붙어 동행할 때, 우리는 어느덧

주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동행은 성화의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 2. 구속사적 진리 안에서 동행은 임마누엘의 약속이 실제가 되는 승리의 삶입니다

### 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권세

(1)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는 장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동행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여정이기 이전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사랑의 구속적 결속입니다.

[마태복음 28: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  
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  
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시  
기 때문입니다.

(2) 동행의 확신은 상황에 근거하지 않고  
주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근거합니다. 내  
가 주님을 놓칠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  
은 내 손을 견고히 잡고 계십니다. 인생  
의 폭풍우 속에서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고독을 느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  
를 업고 걸으시는 주님의 발자국을 신뢰  
하는 것이 믿음의 동행입니다. 임마누엘  
의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 때뿐만 아니라  
실패의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동행하시  
며 우리를 회복과 영광의 자리로 이끄십  
니다.

나.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처럼 생명을 공  
급받는 존재적 동행

(1) 주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시며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요 15: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기능적인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필수 조건입니다. 동행은 이처럼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수액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접붙임의 상태입니다. 주님과 분리된 열심은 결국 영적 탈진을 가져오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동행은 저절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2) 존재적 동행은 ‘무엇을 하느냐(Doing)’보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Being)’를 우선합니다. 사역의 성공이나 업적보다 주님과의 친밀함 자체를 삶의 최고 가치로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

[요한복음 15: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고, 주님의 지혜가 우리 삶의 난제들을 풀어갑니다. 동행은 내 자아가 소멸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게 흐르게 하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깊은 나무가 가뭄을 타지 않듯,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자는 세상의 흥년 속에서도 여전히 푸르른 생명력을 과시하게 될 것입니다.

#### 다.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동행의 끝

(1) 주님과의 동행은 꽃길만을 걷는 안락한 여정이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이 가신 좁은 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 너머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주님과 함께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

라"(롬 8:17)는 말씀은 동행의 역설적인 축복을 선포합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8:17]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될것이니라

(2) 우리의 동행은 이 땅의 죽음으로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주님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영원한 동행의 시작점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과 손잡고 걸었던 자는 본향에 도착하는 날,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는 최고의 찬사를 들게 될 것입니다. 동행은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이며,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가장 안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동행의 끝은 이별이 아니라 영원한 연합의 완성입니다.

### 3. 주님과의 동행을 일상의 구체적인 실천

## 으로 증명하며 살아야 합니다

### 가. 매 순간 주님의 현존을 의식하며 코람 데오(Coram Deo)의 삶 살기

(1) 동행의 실제적인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코람 데오'의 의식을 매 순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은밀한 장소에서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인식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거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절망의 늪에서 소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사소한 순간을 주님께 중계하며 그분의 결재를 받는 것이 동행의 훈련입니다.

(2) 주님과의 동행을 방해하는 세상의 소음들을 정기적으로 차단하십시오. 스마트

폰의 알림보다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적 센서를 가동해야 합니다.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과 함께 걷는 산책의 시간을 갖거나, 일기장에 주님과 동행한 흔적들을 기록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동행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시간의 할애와 마음의 집중을 요구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 나. 내 곁에 보내주신 이웃과 함께 걷는 섬김의 동행

(1) 주님은 홀로 걷지 않으시고 항상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의 곁에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이웃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 곧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사랑의 동행이 곧 주님께 행한 동행임을 잊지 마십시오.

(2) 동행은 나 혼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하늘 성소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를 뒤에서 밀어주고 앞서가는 지체를 보며 힘을 얻는 연대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한 성령 안에서 보조를 맞추어 전진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동행이 누군가에게는 소망의 이정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게 하십시오.

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신부의 영성으로 동행하기

(1) 우리의 동행은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의 정결함을 지향해야 합니다. 세속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동행의 진정한 멋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멀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순결한 동행이 우리를 빛나게 합니다. 동행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입니다.

(2) 오늘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 동행의 날인 것처럼 후회 없이 사랑하고 후회 없이 순종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걷는 매 걸음이 당신의 영혼에 영원한 훈장이 될 것입니다.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주님과 함께라면 그곳은 이미 낙원입니다. 당신의 남은 평생이 주님과 함께 걷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수를 바라보고, 나아가고, 만나고, 대화하며, 마침내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는 당신의 삶은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속사의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6 장

/

예수와  
하나되기

## 제 6 장 예수와 하나되기

### 도입내용

예수와 하나 되고 연합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존재의 뿌리가 섞이는 신비입니다. 내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전격적인 전이를 통해, 주님의 부요함과 거룩함이 나의 것이 되는 영광스러운 신비적 연합에 참여하게 됩니다.

#### 1. 연합은 나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사심이 교차하는 거룩한 존재의 전이입니다

##### 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하는 자아의 파쇄

(1)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철저한 자아의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갈 2:20)고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못 박혔다’는 완료형 시제는 우리의 옛 자아가 이미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처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연합이 아니라 단순한 동거에 불과합니다. 연합은 나의 주권이 완전히 말살되고 주님의 주권만이 오롯이 세워지는 영적 혁명입니다.

[갈라디아서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 자아의 죽음은 고통스러운 과정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어야만 사는 부활의 전제 조건입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나의 자존심과 고집, 그리고 세상을 향한 욕망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왕 노릇 하기 시작합니다. 연합은 내가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수양’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도록 나를 비워드리는 '허용'입니다. 내가 비워진 만큼 주님은 채워지십니다.

#### 나. 포도나무와 가지의 접붙임을 통해 생명의 근원이 하나 되는 비결

(1)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요 15:5)라고 연합의 원리를 설명하셨습니다. 돌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감람나무인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된 것은, 우리의 근원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뜻합니다. 이제 우리는 땅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쓴물을 마시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뿌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흐르는 거룩한 생명력을 공급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연합은 곧 생명의 공유입니다.

[요한복음 15:5]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2)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듯, 연합된 성도의 삶은 인위적인 노력이 아닌 자연스러운 성령의 결실로 증명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그분의 사랑이 내 감정을 주관하며, 그분의 의지가 내 행동의 원동력이 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의 간격이 사라지고, 주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며 주님의 아픔이 나의 눈물이 되는 공유의 신비가 바로 하나님됨의 실체입니다.

다. 신랑과 신부의 혼인 언약을 통해 완성되는 전인격적인 사랑의 결속

(1)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연합으로 묘사하며, 이를 '큰 비밀'이라고 칭합니다(엡 5:32). 부부가

[에베소서 5:32]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한 몸을 이루듯, 주님과 하나 된 성도는 주님의 모든 부요함과 영광을 함께 상속 받는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당신의 것으로 취하셨고, 대신 당신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신부의 예복으로 입혀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교환이 연합의 은혜입니다.

(2) 신부 된 우리는 이제 세상의 다른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정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연합은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일편단심의 영성이 연합을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할 때, 주님은 당신의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공유하시며 우리를 가장 친밀한 사랑의 잔치로 초대하십니다. 하나 됨은 사랑의 극치이며, 존재와 존재가 녹아들어 단일한 목

적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융합입니다.

## 2. 하나 됨은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전 이되는 완성입니다

### 가. 성전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영광스러운 충만

(1)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전 3:16)고 강조합니다. 무소불위하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의 몸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셨다는 사실은 구속사의 경이로운 정점입니다.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내 몸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소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나의 모든 일상은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야 하며, 내 안의 성령님과 일치

[고린도전서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된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2)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Lord)이십니다. 그분과 하나 된 삶은 매 순간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성품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연합은 내 역량의 한계를 돌파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진입하는 문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비로소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온전한 인간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 나.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로서 공동체적 연합을 이루는 유기적 통합

(1) 하나 됨은 개인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연합으로 확장됩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지체이지만 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으며, 한 성령을 마시고 있습니다(고전 12:13). 지체가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듯, 성도는 공동체적 연합 속에서 비로소 온전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는 공감의 영성이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12:13]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2) 머리이신 주님의 지시를 따라 각 지체가 조화롭게 움직일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을 목격하게 됩니다. 나를 낮추고 다른 지체를 높이며 서로 연결되고 결합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확장됩니다. 분열과 시기는 연합을 파괴하는 독소이며 주님의 몸을 찢는 아픔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

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연합은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적 권능입니다.

## 다. 영원한 천국 잔치에서 누릴 완전한 연합의 소망과 기쁨

(1)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연합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완전한 연합의 예표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의 대 제사장적 기도를 통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 17:21)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으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안으로 초대받는 것이 우리 구원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요한복음 17:21]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 그날에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던 주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게 될 것이며,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눈물과 상처가 씻기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온 우주를 덮는 그날, 우리는 비로소 연합의 완성이 주는 형언할 수 없는 희열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의 고난과 외로움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에,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 3.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삶의 실제적인 인격과 사역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가. 내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생각의 성화

(1) 하나 된 성도는 무엇보다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 2:5)라는 말씀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주님의 사고방식으로 교체하라는 명령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려는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주님의 긍휼과 용서의 마음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됨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빌립보서 2: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2)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잠재의식까지 침투하게 하십시오. 말씀과 내가 하나 될 때, 위급한 순간에 내 혈기가 아닌 주님의 지혜로운 반응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과 합치된 생각은 창조적인 역사를 일으키며,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당신의 머릿속이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찰 때, 당신의 삶은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것입니다.

## 나. 작은 일 하나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명의(名義)의 일치

(1) 하나 된 자는 더 이상 자신의 이름으로 일하지 않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른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골 3:17)라는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이 주님께 완전히 흡수되었음을 뜻합니다. 내가 하는 봉사, 내가 하는 직장 업무, 내가 나누는 대화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때 비로소 연합의 실체가 나타납니다. 내 이름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높여지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골로새서 3: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른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2)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주님의 권세가 우리의 사역에 함께합니다. 연합된 성도가 선포하는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그가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와 하나 되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명의를 예수 그리스도께 이전하십시오. 그때부터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께서 친히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신성한 경영의 현장이 됩니다.

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 몸에 짊어지는 사명의 일치

(1)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는 주님의 고난에도 기꺼이 참여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

라"(고후 4:10)는 고백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겪는 희생과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손해 보고 낮아질 때,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력은 더욱 강하게 주위로 뻗어 나갑니다. 연합은 고난의 현장에서 가장 빛을 발합니다.

[고린도후서 4:10]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2)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앓어버린 영혼을 찾고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는 사명에 동참하십시오.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된 자는 주님이 아파하시는 곳에서 함께 울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함께 웃습니다. 당신의 삶이 주님의 구속사적 드라마의 한 부분이 되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일 때 당신은 진정으로 주님과 하나 된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로 사십시오. 당신 안에 사시는 주님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실 것입니다.





7 장

/

예수로  
살아가기

## 제 7 장 예수로 살아가기

### 도입내용

예수로 살아가고 신앙의 완성은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이름과 의는 가려지고 오직 내 안의 예수께서 향기와 편지로 방출될 때, 우리가 딛는 모든 땅은 하나님 나라가 되며 비로소 예수로 사는 자의 우주적 승리가 완성됩니다.

#### 1. 예수로 산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주권이 그리스도께 이양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 가. 내 인생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전 격적인 주권의 교체

(1) 예수로 살아가는 삶의 출발점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주(Lord)'라고 부르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며 내 유익을 따라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로 사는 자는 자신의 지성, 감정, 의지의 모든 보좌를 주님께 양보한 사람입니다. 이는 내 능력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 를 포기하는 것이며,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최종 결재권이 되게 하는 영적 질서의 회복입니다.

(2) 주권의 이양은 한 번의 고백으로 완성 되지 않으며, 매일의 선택 속에서 반복 되어야 하는 자기 부인의 과정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 까지, 사소한 지출 하나와 대화의 말투 하나까지도 주님의 통치 아래 두는 훈련 이 필요합니다. 내가 살아서 펄펄 뛰는 동안에는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공간 이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낫아질 때 비로 소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로

삼아 세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은 나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전능함에 나를 의탁하는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 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재해석 하는 시각의 변화

(1)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 2:5)라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렌즈를 주님의 렌즈로 교체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은 사건과 사고를 인간적인 인과관계나 운명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안에서 해석합니다. 고난이 닥칠 때 원망하기보다 “이 일을 통해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의 태도입니다. 시각이 변하면 반응이 변하고, 반응이 변하면 삶의 질이 달라

[빌립보서 2: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집니다.

(2) 주님의 마음은 곧 긍휼의 마음입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를 향해 똑같이 분노를 쏟아내지 않고, 그 영혼의 곤고함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시선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로 사는 자는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고, 낮은 곳으로 흐르며, 손해 보는 자리를 기꺼이 선택합니다. 이는 억지 순종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성화의 열매입니다. 당신의 눈이 주님의 눈이 되고 당신의 가슴이 주님의 심장이 될 때, 당신은 이미 예수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영광의 목적성

(1)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이 나의 성공이나 증명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로 사는 자의 당당함을 얻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업무, 가사 노동, 학업 등 모든 일상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 3:23)는 말씀은 예수로 사는 자의 직업 윤리이자 삶의 철학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합니다.

[골로새서 3:23]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2)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은 세상의 박수보다 주님의 인정을 사모합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할 때 우리는 강력한 영적 권위를 소유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 뒤에 숨

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나의 명함이 될 때, 주님은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예수로 산다는 것은 내 이름을 지우고 그 자리에 보배로운 예수의 이름을 새겨 넣는 영광스러운 신분 세탁입니다.

## 2. 예수로 삶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방출되는 것입니다

### 가. 내 안의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질그릇의 신비

(1)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하며,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후 4:7)고 기록했습니다. 질그릇 자체는 가치가 없고 깨지기 쉬우나, 그 안에 담긴 예수

[고린도후서 4:7] 우리 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보배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듭니다. 예수로 사는 삶은 나의 견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깨어짐을 통해 내 안의 보배이신 그리스도의 광채가 밖으로 새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2)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할 때보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내 안의 예수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세상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반는 태도를 통해 예수를 발견합니다. 질 그릇 같은 내 삶의 균열 사이로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구속사적 삶의 정수입니다.

나.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서 세상을 정

## 화하는 사명

(1) 예수로 사는 성도는 존재 자체가 그리 스도의 편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지만 성도의 삶을 읽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인격과 삶의 궤적은 세상이 읽는 살아있는 복음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 리스도의 향기입니다(고전 2:15). 향기는 억지로 소리 내지 않아도 주변을 변화시키듯, 예수로 사는 삶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영향력으로 세속의 악취를 몰아내고 하늘의 아름다움을 전파합니다.

(2) 편지는 발신자의 뜻을 정확히 전달해야 하듯, 우리의 삶은 주님의 마음과 복음을 왜곡 없이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향유 옥합이 깨져야 하듯, 우리가 예수로 살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2:15]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는 우리의 자존심과 고집이 깨져야 합니다. 내가 깨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예수의 진한 향기가 진동하게 됩니다. 당신이 머무는 곳마다 예수의 평강이 임하고 예수의 소망이 싹튼다면, 당신은 하나님 의 손에 들린 가장 아름다운 필기도구이자 하늘의 향수병입니다.

## 다. 어둠을 밝히고 부패를 막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실존

(1) 주님은 우리를 향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지 않으려면 세상 속에 녹아 들어가야 하듯이, 예수로 사는 삶은 수도원에 같은 경건이 아니라 부패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 부패를 막아내는 방부제의 삶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억울한 자를 변호하며, 소외된 자의 손을 잡는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예수로 사는

소금의 삶입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더 빛나듯, 도덕적 파산 상태인 이 시대에 성도의 거룩한 행실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등불이 됩니다.

(2) 빛은 자신을 태워 주위를 밝힙니다. 예수로 산다는 것은 기꺼이 나를 태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희생적인 삶을 포함합니다. 내가 손해 봄으로 타인이 유익을 얻고, 내가 낮아짐으로 주님이 높여지는 역설적인 승리를 취하십시오. 세상은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 애쓰지만, 예수로 사는 자는 침묵과 섬김으로 세상을 정복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진 것처럼, 우리의 소금 됨과 빛 됨은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결말로 이어질 것입니다.

### 3. 예수로 사는 삶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 가. 매일 십자가 앞에 자아를 못 박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연속성

(1) 예수로 사는 삶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영구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을 것이니라"(눅 9:23)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아무리 충만했어도 오늘 다시 자아가 살아나 나를 주장하려 듭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안의 불순물들을 걸러내고, "주님, 오늘도 저는 죽고 주님만 사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겸손의 제사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라 매일 내 정욕을 못 박는 실제적인 사형틀이어야 합니다.

#### (2) 자기 부인은 금욕적인 고통이 아니라

[누가복음 9:23]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을 것이라

주님을 더 깊이 소유하기 위한 거룩한 비움입니다. 내가 비워진 그 자리에 주님의 기쁨이 차오르고, 내가 포기한 그 자리에 주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죽는 연습을 하는 사람은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로 산다는 것은 내 생명의 소유권을 날마다 주님께 양도하는 신뢰의 행위입니다. 이 지속적인 부인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변질되지 않는 순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 나.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권세

(1) 내 힘과 결단으로는 절대 예수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권능을 받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행 1:8). 성령 충만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은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라, 내 인격과 삶의 핸들을 성령님께 완전히 맡겨드린 상태를 뜻합니다. 성령께서 내 혀를 주관하실 때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가고, 성령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로 사는 삶은 곧 성령님과 일치된 삶입니다.

(2) 위기와 팍박의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치시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진리만을 선포하는 강력한 영성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새 술에 취하십시오.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인간의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당신의 삶에 가득할 때, 당신은 세상을 뒤흔드는 거룩한 혁명가로서 예수로 사는 법의 진수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 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완성될 영광 을 소망하는 신부의 영성

(1) 예수로 사는 삶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잠시잠깐의 여정일 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왕 노릇 할 영광스러운 소망을 품고 삽니다. 이 종말론적인 시각이 있을 때 우리는 땅의 보물에 연연하지 않고 하늘에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로 산다는 것은 영원의 관점에서 오늘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2)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며 자신을 정결케 하듯,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며 거룩한 옷을 입고 등불을 밝혀야 합

니다. 예수로 산 자는 주님을 만나는 날  
부끄러움이 아닌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남은 평생이  
오직 예수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숨결마다 예수가 있고, 당신의  
손길마다 예수의 사랑이 묻어나며, 당신  
의 발자국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를 기도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  
고, 만나고, 대화하며, 동행하고, 하나 되  
어, 마침내 예수로 사는 당신은 이 시대  
의 가장 빛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 예수닮기 반 교재

초판 발행 2036. 1. 5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훌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7348-2300(이안나목사)  
홈 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http://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mailto:inourlove@gmail.com)

\* 이 교재는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소속된 교회에서 성경공부/훈련을 위해 제작된 교재입니다.  
교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은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가입하시고 최우수회원이 되셔야 합니다.

# 참여성 참목회자 양성기관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 국제 신학교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면 학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심했어!  
국제신학교에서  
학습할거야~



## 사역학 과정

### 사역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 사역학 석사과정

대학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 목회학 과정

### 목회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 목회학 석사과정

대학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 최고의 실력과 영성 능력을 겸비한 훈련과정

국제신학교는 성경과 성령 두 날개를 달고서 보다 강력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신학교를 통해 당신도 강력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셔서 세계 최상의 신학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이빗리 학장



국제신학교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51길 25  
[www.WSLseminary.com](http://www.WSLseminary.com) / 010-3280-7689

성경학!  
**CHANCE**  
BEST SOLUTION FOR SUCCESS LIFE

University of Arizona 석사  
University of Hartford 석사  
Gordon-Conwell 신학교 목회학석사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대표